

선후배 똘똘 뭉친 KIA 가을야구 '맑음'

“선발로 12경기에서 3승밖에 못했다”는 입장 용과 “1할이었는데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다”며 웃은 안치홍. KIA 타이거즈가 입장용의 ‘경합’과 안치홍의 ‘해결사 본능’으로 5위 싸움의 승자가 됐다.

지난 12일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6-4로 이기며 3년 연속 ‘가을잔치’를 확정했다.

KIA는 2016년 LG 트윈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V11’을 이뤘다.

롯데의 막판 추격을 물리치고 5위에 오른 KIA는 16일 고척돔스카이에서 4위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인다.

5위 순간 마운드에서는 관록이 빛났다.

KIA는 11일 롯데 노경은에게 막혀 0-4 영봉패를 당하며 위기에 몰렸다. 긴장감 가득했던 12일 ‘맑음’ 입장용이 선발로 나섰다.

입장용은 1회 선두타자 민병헌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폭투와 포수의 송구 실책이 겹치면서 3루까지 진루를 허용했지만, 외야 플라이 두 개와 이대호의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3-0으로 앞선 2회 2사에서는 전병우에게 안타는 내줬지만 번즈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고, 3회는 삼자범퇴였다.

선두타자 전준우에게 솔로포를 맞은 4회. 2사 이후 연속 안타로 1-3루까지 몰렸지만 초구에 번즈의 방망이가 반응하면서 우익수 플레이가 기록됐다. 5회 2사에서 바나디나의 아쉬운 수비 속에 손아섭에게 3루타도 허용했지만 이번에도 이대호의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이닝을 끝냈다.

볼넷으로 시작한 6회. 문규현의 우익수 플라이 이후 전병우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3-2에서 입장용의 등판이 마무리됐다. 김윤중으로 투수가 교체된 뒤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2루 주자가 들어오면서 입장용의 성적은 5.1이닝



입장용



안치홍

베테랑 입장용, 호투로 롯데와 막판 5위 싸움 다리 역할
4번타자 안치홍, 고비마다 한 방 터트리며 가을잔치 견인

7피안타(1피홈런) 6탈삼진 3실점(2자책)이 됐다.

입장용은 “퀄리티 스타트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언급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싸움을 잘해주면서 승리로 가는 길을 열었다.

24년 차 베테랑의 경험이 눈에 띈 경기였다. 이날 입장용은 커브와 포크볼 등으로 상대 타이밍을 뺏았고 결정적인 순간 직구를 쫓아 낼면서 상대를 돌려세웠다.

입장용은 “커브를 많이 던졌더니 노리고 들어

오는 모습이였다. 상대가 한 구종만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와서 초구에 공을 던져보고 거기에 맞춰 승부를 했다”며 “선발로 나온 12경기에서 3승밖에 하지 못한 게 아쉽다. 그래도 선발로 들어가서 로테이션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5위로 마무리한 2018시즌을 돌아봤다.

그는 또 “이제 후배들이 잘해줄 것이다. 후배들 믿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비하겠다. 한 경기면 끝이라는 걸 선수들이 다 생각할 것이다. 좋은 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타석에서는 막판 부진을 털어낸 안치홍이 웃었다. 안치홍은 올 시즌 꾸준한 화력으로 ‘4번 타자’ 역할까지 맡았지만 10월 페이스가 푹 떨어졌다. 아시안게임 강행군에 따른 체력 저하와 사구 여파가 겹치면서 이날 경기 전까지 10월 9경기에서 34타수 4안타(타율 0.117) 4타점 2볼넷 3사구 4삼진의 부진한 성적을 냈다. 안치홍의 침묵 속에 팀은 4승 5패에 그치면서 위태롭게 5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안치홍은 이날 1사 1-2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우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었고, 4-4로 맞선 7회말 2사 1-2루에서는 좌측 펜스 맞은 2루타를 터트리면서 6-4 승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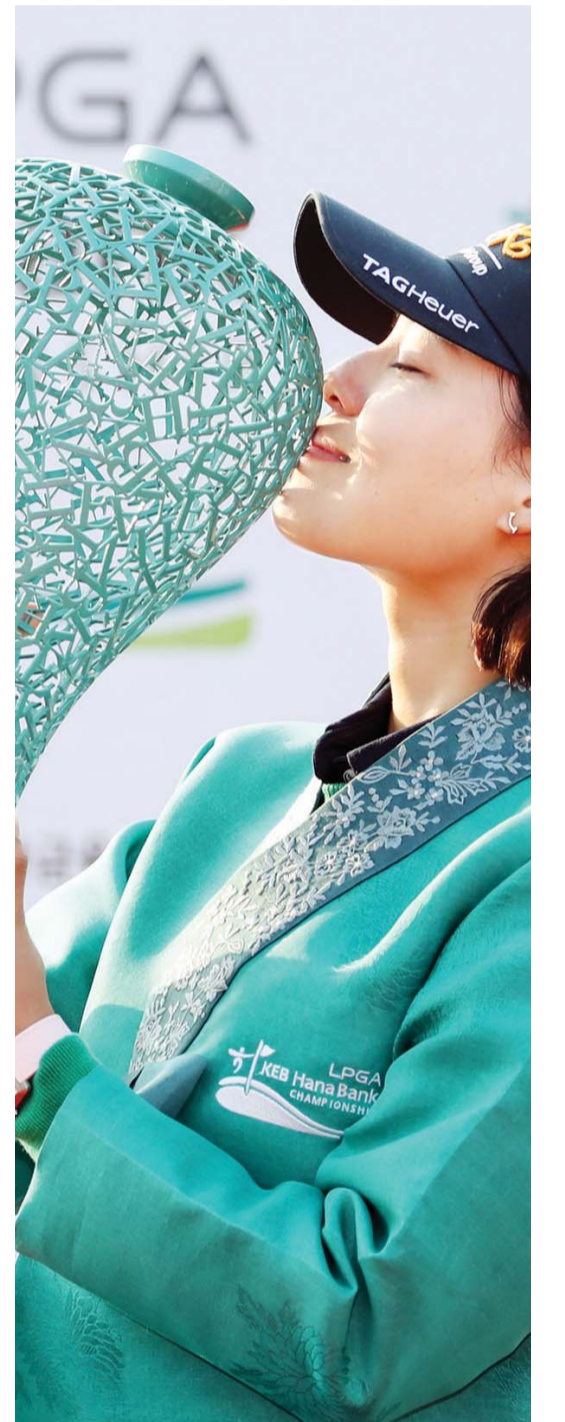
안치홍은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아시안 게임 도중 슬라이딩을 하다 다친 손 부위도 좋지 않았다. 사구도 많이 맞기도 했고, 상대가 몸쪽 승부도 많이 했다. 이렇게 심하게 몸쪽 승부 들어온 것은 처음인데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걸 넘어야 한다”며 “최근 성적도 많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잘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016년) 경찰청에서 돌아오자마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섰다. 3년 연속 포스트시즌을 치르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부활’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
2년만에 LPGA 투어 통산 3승



호랑이들 새역사 도전

내일 넥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5위 팀 준PO 진출 사례 없어

김기태호의 세 번째 ‘가을 이야기’가 쓰인다. 2018시즌을 5위로 마무리한 KIA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고척 스카이돔에서 4위 넥센 히어로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선다.

앞서 15일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다투는 두 팀이 고척돔에서 입담 대결을 벌인다.

이날 오후 2시 고척돔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다. KIA는 김기태 감독을 필두로 내야수 안치홍과 투수 김윤중이 행사장을 찾는다.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는 KIA는 2승을 해야 다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

넥센이 1차전에서 승리하거나 15회 승부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면 2차전은 열리지 않는다. KIA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2차전을 치를 자격을 얻는다.

KIA는 두 번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새로운 역사가 도전한다. 지난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도입 이후 아직 5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없다.

전인지가 2년 묵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 감증을 한국에서 풀었다.

전인지는 14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단독 2위 찰리 힐(잉글랜드)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챔피언십에 속한 월이 18번홀(파5) 두 번째 샷을 방커에 빠트리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전인지는 시즌 첫 우승이다.

전인지는 LPGA투어 우승은 2016년 9월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2015년 US여자오픈 우승과 더불어 통산 3승째다.

전인지는 지난주 인천에서 열린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전 전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며 상승세를 탔고,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다.

US여자오픈 우승을 발판으로 LPGA 투어에 정식 입성한 전인지는 2016년 신인왕과 최저타수상(베이 트로피)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이후 추가 우승을 거두지 못했다.

2017년에는 준우승만 5번, 3위를 2번 하는 등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킹스밀 챔피언십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일 정도로 주춤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이번 우승으로 전인지는 재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세계랭킹 1위 박성현은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치고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며 공동 3위(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에 올랐다. 세계랭킹 2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 교포 이민지(호주)와 대니얼 강(미국)도 공동 3위다.

이로써 박성현은 9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도 지켰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인 고진영은 3라운드까지는 16위였지만,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8개 잡아내는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임기영 “지면 끝 ... 죽기 살기로 할게요”

덕아웃 T 특독

▲역적이 될 뻔했죠 = 지난 12일 김윤중은 롯데에 3-2로 앞선 6회 1사 2루에서 등판했다. 유격수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7회 전준우에게 역전 솔로포도 맞았지만 9회 1사까지 책임지면서 6-4승리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날 KIA는 3년 연속 가을 잔치에 성공했다. 김윤중은 “역전이 될 뻔했다. 최대한 집착하려고 했다. 올 시즌 필승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더 준비하고 잘해야 한다. 부담 안 가지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64경기에 나와 3.70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6패 4세이브 18홀드를 기록하며 불펜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김윤중은 안치홍과 함께 15일 미디어데이 대표 선수로도 나선다.

▲손가락 펴면서도 고민했어요 = 포수 한승택은 KIA의 5위가 확정됐던 지난 12일 마무리 윤석민과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합작했다. 6-4로 앞선 9회초 1사 1-2루의 긴박했던 상황에서 마무리 윤석민이 등판했다. 타석에는 이날 멀티 홈런

포함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뿔어낸 롯데 전준우가 있었다. 최근 윤석민이 부진했던 만큼 공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한승택은 마지막 순간 직구 사인을 냈고, 유격수 앞으로 향한 공이 병살타가 되면서 5위가 확정됐다. 한승택은 “손가락을 펴는 순간에도 고민이 됐다”면서도 “공이 가는 순간 끝났다고 확신했다. 준우형과 경찰청에서 함께 해서 친한데 너무 크게 됐다”고 외친 것 같다. 괜히 미안했다”고 웃었다.

▲죽기살기로 = 작년과 다른 한 해를 보낸 임기영의 각오는 “죽기 살기로 하겠다”였다. 임기영은 지난해 KIA 선발 한 축을 담당하면서 한국시리즈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부상 이후 내내 기록을 보이면서 아쉬움 속에 2018시즌을 마무리했다. 임기영은 “개인적으로는 기복이 있으면서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도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겠다”며 “작년과는 다른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을 치르게 됐다. (한국시리즈와 다르게) 지면 끝이나 죽기살기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뒤늦게 실감이 났어요 = 5위의 디딤돌이 된 한승택의 승리였다. KIA는 ‘디펜딩 챔피언’이

라는 면모와 어울리지 않은 시즌을 보내며 143번째 경기에서 겨우 5위를 확정했다. 롯데와의 마지막 3연전 첫 경기를 내주며 12일 살얼음 승부를 벌였던 KIA. 덕아웃에서 열심히 응원을 한 한승택은 “마지막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지만 부족했던 게 많아서 팀에 미안한 마음이었다. 팀이 어렵게 이겨서 5위를 확정하는 걸 보면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났다. 마무리를 잘 해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제 친구예요 = KIA 마운드에 ‘92 동기’가 늘었다. KIA는 시즌 홈 최종전이 열린 지난 13일 2019 신인 선수들과 부모들을 초청해 시구·시포 행사를 가졌다.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섰고, 신인 선수들이 시포자로 공을 받았다. 신인 선수 중에 ‘에비역’ 박준표의 특별한 환영을 받은 이가 있었다. 4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1992년생 원광대 투수 양승철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박준표는 “진흥고에서 함께 했던 친구”며 양승철의 손을 잡았다. 양승철은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다녀오면서 ‘군필’ 늦깎이 신인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쏘울스토리·타요바리스타즈·태평법률사무소·카멋진님 무등리그 4강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4강 정진산업스카이·파트너스·JUSTICE·F9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5주차 경기가 13-14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13일 진행된 무등리그 8강전에서 태평법률사무소와 카멋진님이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4강행에 오른 쏘울스토리, 타요바리스타즈까지 더해 무등리그 준결승을 치를 팀이 확정됐다. 14일 광일리그의 8강 싸움도 끝났다. 정진산업스카이, 파트너스, JUSTICE, F9가 광일리그 4강팀을 구성했다.

bj 저저스를 상대한 태평법률사무소 1회 선취점을 내줬지만 2회 3-1 역전에 성공한 뒤 3회에도 3

점을 보냈다. bj 저저스가 최세종의 투런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태평법률사무소가 4회와 5회에도 2점씩 보태며 승리를 가져왔다. 이재욱은 6실점은 했지만 5.2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승리투수가 됐다.

카멋진님은 백구클럽에 기원승을 거두면서 광일리그 정상에 올랐던 2016년 이후 다시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50세 이상’ 형님들의 도전은 8강에서 멈췄다. 광주실버야구단이 정진산업스카이의 화력전에서 10-12 패를 기록했다. 두 팀은 1회부터 5점을 주고받으면서 화력전을 펼쳤다. 광주실버야구단

이유학이 3안타로 타선을 이끌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정진산업스카이의 최홍준은 1회 2사에서 출격해 3.1이닝을 4실점으로 막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

2경기에서 맞붙은 시티호텔과 파트너스의 방망이도 1회부터 불을 뿜었다. 시티호텔이 1회 3점을 만들어내자 파트너스가 이어진 공격에서 단숨에 5-3 역전극을 연출했다. 파트너스는 7-3으로 앞선 3회 7-6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선발 김영복에 이어 등판한 이영준이 2.2이닝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승리를 마무리했다.

JUSTICE도 ARE Winders에 1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합류했다. 1회 2점을 만든 JUSTICE는 2-1로 쫓긴 3회 4점을 뽑아내며 달아났다. 하지만 이어진 3회말 다시 4실점을 하면서 1점 차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다. 두 팀은 5회에도 다시 1점씩 주고받으면서 7-6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JUSTICE 7번 오병진은 사사구 3개를 얻어내며 승리에 기여했다.

F9는 송원블루제이스에 19-5 대승을 거두면서 4강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1회부터 3점씩을 주고받으면서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하지만 2회 5점을 보낸 F9이 3회 대거 11득점에 성공하면서 일찍 승부를 가져왔다. 3번 조정훈과 9번 조준영이 나란히 3안타에 성공하면서 화력 싸움을 주도했다.

/김여울 기자 wool@